

한국과 대만의 근대건축 관점에 대한 비교 교찰

유은영*

1. 서론

한국과 대만의 근대건축의 논의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총독부, 은행, 공관, 철도 역사 등과 같이 서양건축양식의 영향을 받은 건물을 말하거나 어떤 건축 전문가들의 경우 서양의 모더니즘 개념에 속하는 건축만을 한국 근대건축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 관점은 건축 역사를 외국의 특히 서양의 건축 양식에 비추어 볼 때 피수용자가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가를 통해 근대건축의 우수성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한국과 대만의 근대건축 시기를 구별해보면 개항에서 일제강점기까지 동시에 수동적으로 서양 건축을 받아들였고 또한 동서양 양식을 망라해서 가장 광범위한 양식을 지녔던 시대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양자가 모두 일본에 의해 근대 건축이 건설되었고 동시에 서양의 교육을 받은 자의식적 건축가를 배출한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특히 타이베이와 서울의 도시재생계획에 있어서 문화유산으로서 고적 보존과 함께 현재하는 근대건축물의 재활용을 검토하고 있어 근대건축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근대건축물의 보전 가치와 함께 모더니즘의 실재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서양의 근대건축의 모더니즘을 두 지역에서 각자의 건축 전통을 기반으로 전통 문화와 모더니즘이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며 발전하였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공간에 어떻게 구현됐는가에 주목하고 한국과 대만적인 근대건축의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2. 근대의 개념과 근대 건축의 시기

근대를 보는 시각은 논지에 따라 다를 정도로 이질적이고 다양하며 동시에 이 용어와 관계된 모던과 근대의 개념상의 차이도 존재한다. 근대라는 개념은 새로운 형태의 생산이기에 앞서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의 생산임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단위를 동질성의 시간과 공간으로 끊어 내는 개념인 ‘모던’, ‘모더니즘’¹은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계몽주의, 혁명의 시대인 19 세기, 20 세기에 이르는

* 劉恩英, 국립대만대학교 건축도시연구소(國立臺灣大學建築與城鄉所) 博士候選人

¹ 본 글에서 근대건축의 시기적 구분의 의미로 ‘근대’라는 명칭을 쓰고, 근대건축의 양식적 경향을 지칭하는 의미로 ‘모더니즘’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다.

긴 논쟁적인 담론사를 갖는다. 한편, 모던개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중세 이후를 가리키는 ‘시대구분’의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근대’로 번역되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대의식’을 가리키는 철학적 담론의 뜻을 갖는 근대성, 근대(Modernism)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철학적 담론으로 국한되기 보다는 역사적으로 독특한 정치, 사회문화적 현상의 복합체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건축역사가인 조르조 치우치(Giorgio Ciucci)는 근대운동을 일종의 ‘신화’로 지칭하고, 오늘날 일부 비평가들은 실제로 근대 건축가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이념의 부재로 근대건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대건축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바 있다². 그러나 근대운동의 시작부터 함께 했던 수많은 이론가들과 건축가들에게 근대건축의 근대는 근대운동을 불러왔던 시대적 개념과 근대 건축가들의 다원화된 형태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신념이었다. 그러나 공통된 신념으로서의 근대는 전후 서양의 근대건축이 급격히 범세계적인 보편건축으로서 국제주의 양식화 됨으로써 그 본질적 특성이 획일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서양의 근대건축의 특징인 모더니즘은 아래 표 1 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전통의 자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근대 건축은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산업화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은 정립되지 못했으며 처음에는 재료만 바뀐 고전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건축적 규범에 대한 갈망은 근대 사회의 흐름에 맞는 형태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근대 건축은 전통의 틀에서 벗어나야 했으며 많은 건축가들의 의지 덕분에 전통의 틀을 벗어나 근대 건축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새로운 형태들이 현대 건축에서는 다양성이 발현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대로의 전환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근대의 정립이 있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대만의 근대건축은 다른 어느 시기의 건축보다도 일제시기를 거쳐 전통과 현대가 공존했다는 점에서 문화, 정치, 사회적 관계 내에 독특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근대건축의 본질적 이해를 위해서는 근대건축을 구성하는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척도에 대한 상호 분석만이 ‘모더니즘’의 진화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서양의 모더니즘 (Modernism) 특성
시기별 모더니즘 전개	17 세기-이론적 토대 마련 18 세기-계몽주의 철학을 통한 이념 구축 19 세기-산업주의 근간, 사회경제문화의 변동의 아이콘 20 세기-전지구적 현상
모더니즘의 유형별 구분	시대의식으로서의 모더니티-17 세기 생활양식으로서의 모더니티-18 세기 이후
모더니즘의 내용	과학적 탐구의 우월성에 의한 지식의 무한한 발전 사회와 도덕의 개선을 향한 무한한 진보

(표 1: 서양의 모더니즘 (Modernism) 특성 정리)

따라서 본 연구는 모더니즘 내에서 밝혀진 본질적 특징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아래 표와 같이 대만과 한국의 시대적 범위를 구분하여 두 지역에서

² Christian Norberg Schultz(1982), *Roots of Modern Architecture*; 근대건축의 기원

비교적 공통적으로 근대건축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인 일제시기 근대건축의 내용과 비판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기별 대만의 근대건축	시기별 한국의 근대건축
- 1895년 이후의 대만건축 - 일제시기의 건축 (1895년 ~ 1945년) - 전후 현대건축 (1945년 ~ 현재까지)	- 구한말 근대건축 (1910년 이전) - 일제시기의 근대건축 (1910~45년) - 해방 이후의 근대건축 (1945년 이후)

(표 2: 시기별 한국과 대만의 근대건축)

3. 한국과 대만의 근대건축 특징

한국과 대만의 근대건축에 대한 특징은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 모더니즘의 형성 중 다음과 같은 4 가지 공통된 주제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서구 건축양식의 수용

개항이후 이질적인 서양건축이 직접 또는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고, 건설 유형은 주로 서양의 양식주의 건축으로서 구법과 재료, 공간 형태, 기능이 전통 건축과는 다른 것이었다. 주로 건축의 주체가 외국인이었지만 도시 경관의 일부를 이루었고, 학교, 교회, 공공, 주거 및 상가건축은 내국인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아래 그림은 서울의 경복궁과 광화문일대를 재현한 모형으로 왼쪽은 조선말 전통 건축양식과 전통취락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며, 오른쪽 그림은 1914년 경복궁 정면에 조선총독부 건설 이후 서구 건축양식을 수용한 근대 건축물군과 직선화된 도시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서양의 근대건축양식의 수용은 건축물의 형식변화뿐만이 아니라 전통 취락구조까지 근대화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서울시 광화문 부근의 근대화 전 후 비교, 왼쪽은 조선시대 말, 오른쪽은 1914년 조선총독부 건설 이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모형)

2) 전통건축의 근대적 변화

20 세기에 들어오면서 외래건축의 영향과 전기, 전화, 철도, 수도 등 신문명의 보급으로 전통건축도 차츰 근대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전통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능의 교회와 학교 및 도시상업 건축에서 그 변화가 뚜렷하였다. 그것은 전통적인 목조 기와지붕에 2 층을 두고 난간과 기둥, 벽은 서양식 또는 중국식을 절충한 건물이었다.

한국 서울의 정동 제일교회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가 1887년 한옥을 개조해 이 한국 최초 감리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는 영국 고딕양식을 간략화한 빅토리아 고딕 양식이다. 서양의 웅장한 수직적인 고딕과 달리, 주변의 초가집의 풍경을 고려하여 수평적이고 소박하고 단순함을 추구했다. 19 세기에 건축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서구식 개신교 예배당으로 1898년 완공된 명동성당과 함께 당시 서울의 근대 종교건축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정동교회 예배당에서는 종교집회 외에도 각종 강연회와 음악회 등이 열려 민중 계몽과 근대 문화 수용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 1898년 독립협회가 정치개혁운동을 본격화할 때 정동교회는 그 주요한 배후 근거지의 하나로 주목을 받았다. 건축양식으로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단층 고딕양식이며 당초 건평 115평의 십자형 건물이었으나 1926년 1500명 규모로 증개축하여 현재는 삼랑식(三廊式) 구조를 하고 있다. 뽕족 아치를 바탕으로 구성된 창틀과 석재가 아닌 목재로 마감된 회중벽의 구조처리가 특징적인 건물이다. 최근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거쳐 현재도 이 건축물을 부속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1916년에 준공된 타이베이 제남교회는 영국의 빅토리아풍과 18세기 고딕양식으로 표현된 개신교 장로회 교회당이다. 일제시기 타이완으로 건너온 개신교 일본인을 위한 교회당으로 일본인 건축가 井手薫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대문의 아치모양은 시각적으로 심도감을 주며 뽕족 아치창은 타이베이 치리안(唶哩岸)지역의 단단한 석재를 이용하여 미감과 함께 안정감을 보여준다. 또한 오른쪽 종탑의 석재 장식과 고딕식 부벽도 이 지역의 석재재료와 근대건축기술로 마감되어 서양식 고전 건축에 근대의 기술이 결합한 절충식 근대 건축물이다.



(그림 2: 왼쪽은 1887년 서울 정동제일교회 예배당, 오른쪽은 타이베이 제남교회 예배당)

3) 모더니즘의 유입과 모방

근대 합리주의 건축은 1930년대 후반 일본을 통해 한국과 대만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일본 건축계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근대건축이 전개되었고 1930년대를 전후하여 국제주의 양식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총독부가 설계한 공공건물들과 학교, 전화국, 공장, 일부 민간설계에 의한 상업건축에서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건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양식주의적인 특성이 남아있긴 해도 철근콘크리트조와 평지붕 구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구조체계가 외관에 표현되기도 하였으며 평면구성이 보다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이들 ‘초기 모더니즘’은 서구 근대건축(모더니즘)의 근간이었던 사회주의적 이념과 정신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구건축의 양식을 모방하였을 뿐 그것에 내재된 정신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1906년~1925년의 도시기반시설 건설시기는 항만 건설과 도로, 철도 등의 개통으로 근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요 건축물이 개항 당시 설정된 거류지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었다. 1899년 개항 직후, 일제시기의 대한제국에 의해 총독부, 우체사, 전보사, 경무서 등의 공공기관이 각 지역에 설치되었고 일본에 의해 일본영사관과 지역 분관들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한국 도시지역의 한국전쟁과 화재, 재건축 등으로 이들 건축물 자체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개항 직후에는 근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은 아니었으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현재까지도 시가지의 가로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격자형 가로체계가 이때 완성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다.

주요 관공서는 초기에 세관, 경찰서 등 행정기관은 시가지 중심 곳곳에 위치하며 벽돌조 건축물로 서구 양식주의 경향을 나타내는 건축물군이다. 이와는

달리 재판소와 감옥, 역 등은 거류지 외곽지역에 대부분 목조나 벽돌조의 건축물들로 양식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식 건축 수법으로 지어지거나 부분적으로 서구의 양식의 절충식 양식으로 건립되었다. 일본 전통 종교건축인 신사와 사찰 같은 종교 건축은 전통적인 일본 목조 건축기법으로 지어졌다. 이들 건축물과는 대조적으로 서구 선교사에 의해 지어진 종교건축물은 서구 석조건축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박공지붕과 합각지붕으로 처리된 지붕부분은 서구 건축양식과는 차이가 나지만 저층부분 석재의 거친 마감과 모서리 부분의 석축 기법 등은 전형적인 서구 건축기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더니즘 문화의 유행과 맞물려 건축에서도 1920년대 말 이후 모더니즘 건축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민간 상업건축물을 중심으로 모더니즘 건축이 확산되어 갔으나 1930년대에도 여전히 금융관련 건축물들은 서구 양식주의 건축을 모방하여 지어졌다. 특히 은행은 서구 고전주의 건축에서 유래하는 장식적인 처리와 육중한 외관으로 건축되었다. 이러한 건축물들 이외에도 이 기간 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업건축과 산업건축이 지속적으로 지어졌다.

서울의 대표적인 민간자본으로 1908년에 기호흥학회가 애국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한 민족학교 중앙고등보통학교(현 중앙고등학교, 그림 아래 왼쪽) 건축은 일본인 건축가 中村與資平의 설계로 중앙고등학교 동관은 1923년 10월에 연면적 647.93㎡, 2층 벽돌조로 준공되었다. 대부분의 창문은 수평아치로 되어 있으며, 돌출된 박공면의 2층 창문은 뾰족 아치로 고딕풍을 강조하였다. 이들 아치에 화강암을 끼워 넣어 통일된 적벽돌 외벽면에 변화를 주었다. 지붕에는 삼각형 돌출창을 두고 굴뚝을 노출시켰다.

같은 시기에 지어진 대만의 학교 건축으로 1920년에 타이베이에 설립된 건성소학교(아래 그림 오른쪽)는 일본소속 소학교로 타이베이의 구시가지인 따다오청(大稻埕) 일대의 일명 귀족학교였다. 적벽조 2층 장방형 건물구조로 현재 타이베이 당대예술관(台北當代藝術館)으로 불리고 있는 본관은 동서로 길게 뻗은 ㄷ자형 학교건축이다. 해방 후 폐교되었다가 현재 타이베이 시정부의 도시재생계획의 일환으로 예술관으로 복원되어 이용되고 있다.



(그림 3: 왼쪽은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오른쪽은 타이베이 당대예술관 구

建成小學校)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반의 시기는 대만과 한국에서 소비적인 모더니즘 문화가 유행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유행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건축물이 三中井백화점과 극장 등의 건물이다. 소비문화의 중심인 백화점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근대문화의 상징인 영화와 사진에 연관된 건축물들이다.

절충적인 근대 건축물의 예는 주택이나 선교사 주택에서 흔히 예를 들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외국인 거류지가 처음으로 생겼던 1877년 부산에서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1910년 이후에 급증하였다. 대부분은 일본에서 당시 유행하였던 일양 절충식 주택이 한국 내에도 유입되었는데, 동일주거영역 내에 외부인을 맞이하는 응접공간은 서양식으로 하고,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공간은 전통적인 일본의 주거공간을 따르고 있다. 서양식 주택의 초기 사례로는 1905년에 들어선 제임스 존스톤의 별장을 들 수 있다. 석조의 4층 건물이며 연건평 452.92평의 대저택으로 설계자는 상해에서 독일인 클럽을 설계한 바 있는 독일인 로트케겔(Rothkegel)이며, 건축공사는 중국인 도급업자가 맡았다고 한다. 그 외에 당시 민간에서 양식주택의 건설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커다란 양식의 대저택을 지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국인 부호의 주택이 있다. 홍선대원군 이하응의 별장, 서울 옥인동에 지어진 윤덕영의 별장, 한국인 건축가 박길룡의 김연수 주택, 김명진 주택, 박인준의 조준호 주택, 김세연의 최창학 주택 등이 있다. 당시 한국의 주거용 주택에 있어 문화라는 수식어는 ‘근대화’라는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1930년대에는 근대화된 주택을 의미하는 문화주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존의 인습적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의지를 표상하고자 하였다. 해방 이후의 한국인에게 문화는 곧 문명개화, 근대화를 의미하였기 때문에 자주독립을 열망하던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 정부의 주도로 문화주택의 근대화된 건축기법을 수용하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들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4: 왼쪽은 홍선대원군 이하응의 주택, 오른쪽은 제임스 존스톤의 별장;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사진)

한편 대만의 대표적인 절충적 주거건축인 양로(洋樓)는 당시 새로운 건축 문화형식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전통 주거건축인 삼합원(三合院) 또는 사합원(四合院) 건축양식에 서양의 모더니즘을 결합한 공간 체계는 양로의 소유 신분이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변화하였다. 대표적인 양로가 밀집된 지역인 금문도의 양로는 과거 동남아 식민지에서 활약하던 중국 상인들이 귀향하여 지은 별장의 용도가 많았다. 보통 전통 주택 건축양식인 가옥구조(番仔厝)에 서양식 장식(山頭裝飾)으로 파사드를 꾸미거나 외부 복도 또는 베란다(veranda)를 덧대어 짓는 구조 등이 민남식 양로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오각기(五腳基) 양로라는 주택은 특히 영국령 식민지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건설한 주택양식으로 5척의 긴 통로를 드는 구조를 하고 있으며 양로의 건설 유형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렇듯 전통공간에 근대 건축의 요소를 결합하여 변화를 주었으며 민간건축의 근대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림 5: 대만 금문도의 '양로'주택 건축양식)

한편 모더니즘은 위의 절충적 경향에서의 변화와 근대라는 시기가 중첩되면서 192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모더니즘 건축은 절충적 경향에서의 새로운 성취들을 더욱 진전시켰고 절충적 경향에 남아있었던 양식주의의 잔재에서 완전히 탈피함으로써 절충적 경향과는 구별되었다. 이러한 절충적 경향 내에서의 변화와 모더니즘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인 원인은 일체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보편화였다.

4) 모더니티의 추구

국내건축과 서구건축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해방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서구의 근대건축을 모방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추구하였다. 특히 서양에서 건축을 배우고 돌아온 대만과 한국의 젊은 건축 세대들은 당시의 서양의 신기술과 간소화된 디자인을 도입하여 대학 건축, 공공건축물에 그들의 이상적인 모던 건축을 선보였다. 한때 세계 모더니즘 건축의 흐름에서 소외되었던 당시의 건축가들은 근대건축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고 주로 디자인 양식과 기

술적인 성격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자율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한국 현대건축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4. 결 론

본문에서 논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을 바탕으로 정립된 근대화(모더니즘)는 가치와 의의를 지녔으며 이는 근대 건축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서양과 전통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접근과 재해석은 변화하는 사회와 그 보조를 맞추었고 특히 건축 분야는 풍부하고 다양함을 지닌 근대 건축으로 정립된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 건축의 정립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이 후 현대 건축의 기반이 된다. 서양의 근대화, 즉 모더니즘은 충분한 가치와 의의를 지닐 수 있는 전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는 진보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확립 할 수 있다. 둘째, 전통에 대한 인식이 있기는 했지만 대만과 한국의 근대화는 서양처럼 독립된 자율의지를 수반하지 못했고, 근대건축의 정립은 숙고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의 서양식 전통주택과 대만의 양로 등은 각 지역의 전통건축 공간에 대한 절충과 모더니즘의 수용으로 자유로운 해석과 이를 건축에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합리적이었다. 일제시기를 겪었던 양국은 이미 근대로의 진입에서 시간상으로 뒤처지게 되어 서구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근대를 정립하고 만다. 하지만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근대 건축 정립의 움직임은 미약하지만 있었으며 그 바탕은 다름 아닌 각자의 전통 건축이었다.

한국과 대만의 근대건축이 서양의 모더니즘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건 세계건축사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명동성당을 서양의 고딕성당을 모방한 건축이라고 하면 세계건축에 기여한 바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당을 세우면서 남녀의 분리에 의해 신도의 좌석이 구분되었고 공사하는 사람들의 손이 작아서 벽돌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그 다음에 붉은 벽돌과 회색벽돌의 사용이 서양건축과 달라 우리 나름의 건축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 건축을 기반으로 해서 외래 문화가 어떻게 충돌을 했고, 본래의 문화도 다시 성숙되고 소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문화를 받아들이는 건축적인 태도로서 한국의 경우 근대건축을 식민건축이라고 단정하여 하루 빨리 철거해야 할 존재가 된 적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구 조선총독부 청사의 철거논란은 1993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신한국 건설을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 때 시에서 조선총독부 건축물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전용된 적이 있었는데 정부는 이 건물을 철거한 뒤에 경복궁을 복원한다는 논리를 대두했다. 그러나 철거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남아있는 소중한 근대유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한국인에게 있어 식민시대에 대한 정신적 부담감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그 이면에는 토지에 대한 경제논리도 숨어 있었다. 한국사회가 부를 축적해가는 과정의 부도덕함이 형성한 사회적 의식이며, 일제강점기의 건축을 철거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과거 역사를 지우는 일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의한 인위적인 근대화는 서구 근대화의 강압적 수용을 초래하였다. 전통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정립이 아닌 서구 근대화의 결과물로의 대체가 근대화가 된 것이다. 전통 건축은 서양의 전통 건축과 동등한 가치를 지녔으며 이는 변화하는 시대의 정립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가능성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대 상황에 따른 자율성이 배제된 근대화는 전통과의 단절을 초래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근대건축의 정립을 위한 건축가들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서양의 근대 건축의 정립의 과정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움직임도 해방 이후 한국의 한국전쟁과 대만의 국민당 군사유입 등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하였다.

한국은 개항 직후와 일제시기에 건설된 근대 건축물들 중 이미 많은 숫자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이미 멸실되어 그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시의 근대건축물이 일부 현존하고 있으나 이러한 건축물 역시 지속적인 도시화 과정에서 점차로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이 근대건축물의 보존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황이나 변천과정에 연구 결과를 도시 재생에 활용하고 있다.

대만의 근대건축연구의 경우 한국과 비교하여 볼 때 남아있는 근대건축의 원형과 보존된 건축물은 많으나 근대건축의 정체성 연구와 활용이 미비하다. 특히 동북아 근대건축과 차별화되는 대만 내의 객가 건축, 원주민 건축과 모더니즘의 결합 등을 보여주는 근대건축물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문화재청. (2006).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 김동식. (2008).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 문화재청 지정 근대건축물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소연. (2007), 일제강점기 한국인 건축가의 식민지 경험과 의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23 호
- 이완건. (2005), 「서울의 역사성 표현을 위한 근대건축 보존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석재. (2005), 한국 현대건축 비평, 예경.
- 건축운동연구회. (2008), 한국근대건축개론, 대건사.
- 江柏煒. (2000) 《“洋樓”：閩粵僑鄉的社會變遷與空間營造（1840s-1960s）》。臺灣大學建築與城鄉所博士論文.
- 傅朝卿. (1999) 《日治時期臺灣建築》。臺北：大地地理.
- 李乾朗. (2000) 台灣近代建築 雄獅圖書.
- Gidion. (1940), Space, Time, Architecture.
- J.R.Curtis. (1982),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 Mark Wigley. (1995), White Walls, Designer Dresses: The Fashioning of Modern Architecture, MIT Press, Cambridge.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www.museum.seoul.kr/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and Taiwan in Comparative Perspective

Yu, Eun-young ·

There are a lot to be discussed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in viewing modern architectures. For example, if the buildings construct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like the Governor's Hall, banks, official residences are in Western architectural styles or they are historic style. Some scholars believe that the Korean modern architecture can only be evaluated by the standard of Western modernism. This is due to the tendency based on how much the building mixes, especially the extent of foreign western-style architectural style to judge historical buildings.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conflicts and development of the areas on a traditional basis, the traditional culture and the new culture. Therefore it focuses on how the cultural conflicts and development unfolded in a real space, and shape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architectures in South Korea and Taiwan.

Key words: modern architecture, South Korea, Taiwan, Comparative